현대사회를 가르켜 흔히들 과학의 시대, 분업의 시대라고 한다. 사실 현대인의 모든 의식주생활에서 과학기술의 힘을 입지않은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일것이다.

우리들이 걸치고 있는 옷감 한올 한올에서부터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문명에 의한 기계화의 과정을 거치지않은 것은 거의 없다.

19세기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로 여겨졌으며 사실상 그 이전에는 오로지 神의 조화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류사회에 등장케 된 것들도 수 없이 많다.

19세기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로 여겨졌으며 사실상 그 이전에는 오로지 神의 조화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류사회에 등장케 된 것들도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에 대한 찬양은 무한정 치솟아 올라갈 수 만은 없게되었다. 과학기술의 마력에 잠시나마 정신을 잃고있던 이 지구상에는 뜻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부산물이 산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해와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반갑지 않은 과학화의 부산물은 온 인류에게 공포와 질병을 가져다주고만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봉사라는 함수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아마도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人命은 在天이라는 고정관념에 싸여있던 과거에는 생명의 연장, 생명의 창조는 인간능력이상의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 각종 통계에 의하면 인류의 평균수명은 과거 수세기전에 비해 월등히 연장되었으며 드디어는 시험관아기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져 생명의 神秘에 까지 도전하게 되었다.

이렇듯 의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것과 비례적으로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의료시설과 의사, 약사, 간호원의 증가를 보게되었다.

다른 과학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의사나 간호원등을 지망하는 이들중에는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보고자하는 의도에서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된다.

간호는 인본주의적 전문직

아직도 많은 간호학과지망생들은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새기며 간호교육을 받고자한다. 그러나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중의 상당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회의감을 품고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은 과중한 간호업무에 시달리고, 그들이 배웠던 이론과는 거리가 먼 실제환경들, 심지어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간호원의 정당한 직무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꿈에 부풀었던 간호원을 여러면에서 실망시키는 상황이다. 악순환은 계속되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있는 환자들이나 환자의 가족들은 이렇게 지쳐있는 간호원에게 불친절하다는 불만까지 토로하게되니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간호의 본연의 자세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이러한 간

호는 국적, 인종, 종교, 연령, 성별, 정치, 또는 사회적 배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않는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생각해볼때 간호원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간호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것이며 현대에 와서는 무조건적인 봉사활동의 차원이 아닌 하나의 뚜렷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갖는 전문직임을 감안할때 절대적인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할수는 없다고 본다. 더우기 인간에 대한 애정만으로 간호직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河 英 洙
(대한간호학회장)

아닌 이상 무한정한 봉사만을 기대하기 보다는 간호직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인식하고 그에 알맞는 전문직으로서의 대우가 필요하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간호원이 할 수 있는 각종 간호직무는 그들이 배운 과학적인 전문지식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형성되었을때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는 것이다. 즉, 간호원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해, 습득한 정예과학인인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정감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호원은 의사의 진료보조자역할이상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그리고 주사를 놓아주거나 약을 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간호원의 행위는 환자의 입장에서나 환자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도 할수있겠다. 사실 간호원들이 하고있는 직무가 그이상의 아무것도 없다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는데는 간호원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의사나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의 입장에도 몇가지 재고해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의사와 간호원은 맡은바 직무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싶다. 의사의 주임무가 진료라면 간호원은 간호원 나름대로 환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혹은 회복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하며 간호를 계획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하며 또 할 수 있어야만 할것이다.

인류의 건강은 고도로 발달한 의학 기술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거기에는 낫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력과 안정된 마음, 평상시의 철저한 위생의식들이 따라야 하겠고 또한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우고 자신의 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대처해나가게 하기위한 간호원의 자상한 보살핌과 단순한 말벗이 아닌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즉, 환자와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파악하고 나름대로의 간호계획을 세워 환자간호에 임하는 전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간호원의 역할은 의사의 치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도 할수있다. 그러나 병원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현장에서는 간호원의 역할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않고 있을뿐 아니라 간호원들 자신들도 그들의 역할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간호원 스스로 전문직업이라는 긍지를 갖고 항상 연구하고 성심껏 봉사하는 자세를 갖는 일이 중요하겠지만 이와 아울러 간호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도 많은 수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루빨리 우리사회에서 간호원들이 그들의 날개를 활짝펴고 환자들을 정성껏 돌볼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